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마음 둥글게 둘 아니게 사는데 자비”

않는다 해도 도가 높은 동생이 하나밖에 없는 누이를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해 주지 않겠소?” 하면서 공부할 것을 권했다. 그런 어느 날 누님이 절에 오기로 한 날, 스님은 떡이며 과일이며 갖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누님이 온 것을 보고도 인사한 마디 없이 말이예요. 그러니 누님이 화가 났겠소. 그래서 “스님께서 오늘 왜 먹지 않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인가?” 하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그러십니까? 동생이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있는데 누님께서는 배가 부르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하니 “그게 무슨 말인가? 스님이 음식을 먹어 배가 부른데, 내 배가 부를 까닭이 있는가?” 했답니다. 그제서야 스님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동생이 도가 높으면 누님은 도를 닦지 않아도 구제가 된다고 하시면서 어제 음식은 다름니까? 자기 배가 부르려면 자기가 먹는 수 밖에 없으므로 누님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했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죠. ‘자기 뿌린 주인공을 진실히 밟아서 걱정을 하지 말라, 하늘이 무너진다고 해도 무너지게 하는 것도 너고 그걸 한 손가락으로 들어서 무너지게 하지 않는 것도 너다, 그러니까 그것도 걱정한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입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죽는 것 사는 것의 생사를 다 버린다고 하시면서 생사를 가지고 논의한다면 양면을 다 놓아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만 너무 강해서 일이 좋게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내 주인공 뿌리에 합쳐서 둘 아니게 그 자리에 놓는다면, 그리고 어떠한 일이 생겨도 감사하게 놓는다면 그게 둘 아니게 운전이 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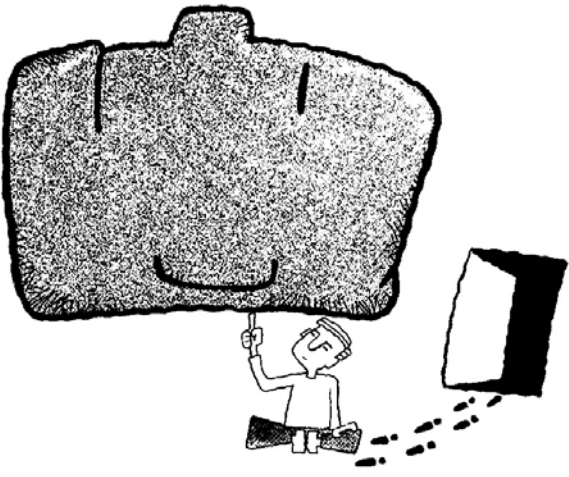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당신이 심부름꾼 되면 다 잘 돌아갑니다” 아랫사람 낮게 웃사람 높이 보지 말도록

너, 살리는 것도 너데 될 달아나.’ 이런 정도가 돼야 한다. 사람이 사는데 때에 따라서는 참 딱하고 불쌍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사람만 그런 건 아니죠. 요만한 지렁이 곤충등 미생물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그래요. 부자로 살아도 그만한 이유가 있고 가난하게 살아도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 말예요.

그러니 얼른 깨우쳐서 이 중세계(中世界)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세계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내 몸에서 벗어나야 지구의 공기주머니 안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공기주머니 안에서 벗어나야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천대천세계란 무엇인가? 과거·미래·현재를 말합니다. ‘과

너, 살리는 것도 너데 될 달아나.’ 이런 정도가 돼야 한다. 사람이 사는데 때에 따라서는 참 딱하고 불쌍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사람만 그런 건 아니죠. 요만한 지렁이 곤충등 미생물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그래요. 부자로 살아도 그만한 이유가 있고 가난하게 살아도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 말예요.

그러니 얼른 깨우쳐서 이 중세계(中世界)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세계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내 몸에서 벗어나야 지구의 공기주머니 안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공기주머니 안에서 벗어나야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천대천세계란 무엇인가? 과거·미래·현재를 말합니다. ‘과

그리고 좌선하는 문제도 그래요. 꼭 좌선을 할 때만 ‘해야겠다’ 그러고 앉습니다. 또 다 했으면 ‘그만해야지’ 하고 일어난다. 그러면 지구는 계속 돌아가는데 글러가다가 서버리고 말죠. 또 몸중에도 송장이 돼야 맞죠? 다시 앉을 때까지는 말이예요. 하지만 그 몸뚱이가 멈춰서는 게 아닙니다. 앉았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났다가 자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다시 앉기도 하니 좌선·입선·좌선·행선이 다 참선이다 이 소립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행을 하고 나가는 것이 전부 참선이다 이 뜻이예요. 그렇게 하고 들어가야지 만약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한다면 그 길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생사조차 놓고 가야 하는데 살지도 그래요. 내 생명을 위해서 살겠다는 생각도 없고 죽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산에서 공부할 때부터 죽어갔으면 죽이고 살리겠으면 살리고 너 알아서 해라

18면으로 계속

여러분과 항상 한자리를 하고 가는 이 도(道)의 길은 끝이 없는 길입니다. 혼히들 육신의 옷을 벗으면 죽는다고 하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함에 의해서 진화되고, 또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진화해서 어떤 모습으로든 천차만별의 차원에 따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에누리가 하나도 없는 거죠.

“어느 누가 못되려 하겠습니까 안될일 몰라서가 아니라 쩡과 한생각 돌리지 못해서...”

라구요. 그랬더니 꽃나무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오긴 어디서 나와, 난 불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다시 “마음의 눈으로 봐야 네 뿌리가 보이지, 마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뿌리를 볼 수 없어. 그리고 너도 흙이 가려져 못보는 거지, 흙만 가리지 않는다면 네 뿌리를 내가 볼 수 있었을텐데.” 하니 “흙으로 덮여주지 않는다면 썩은 어떻게 남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알았구나.” 했죠. 그럴 때 그 꽃나무는 바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게 그렇게 빠른 것이 없습니다.

불가(佛家)에서는 무명(無明)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말할 때는 흙이 덮여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빼놓고 썩어 아무리 살겠다고 발버둥을 쳐도 그것은 결립이 많아서 되지를 않죠. 구의 법·유의 법이 같이 돌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걸려서 마음먹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마음먹는 게 운전수이니 자기 운전은 자기가 해야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참자리에 의해서 힘이 배출되니까 그 힘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고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말을 되풀이 하지만 일체 만물만생이 다 자기 종자가 있고 자기 뿌리가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주님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부처님이라고 이름은 붙여졌지만 결국은 모두 자기 자신의 자불(自佛)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을 믿지 말고 자기 자신의 근본(根本)을 믿

어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체를 자기가 모르고는 모두 캄캄하게 되거든요.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까 상대가 있고 세상이 있고 종교도 있고 가정도 있고 세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생활 전부가 심성의학이며 심성 과학이며 심성체물리학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예를 들어 농사를 지어 쌀로 밥을 해먹는 것도 과학

이며, 어린애를 생산해서 낳는 것도 과학입니다. 과학이라는 생각을 안할 뿐이지 어느 것 하나 과학 아님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심성(心性)을 빼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일일이 말로 안할 뿐이지 이미 심성과학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단지 뒷날 썩고 아랫사람이 밟으면서 같이 돌아가는 걸 모를 뿐입니다. 이론으로 불법을 말한다면 한계가 있고 결림이 있고 나뉘고 있고 분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법(空法)의 대승(大乘)의 도리는 그게 아닙니다. 물고기 한 마리를 먹어도 살생이라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물고기의 모습은 모습대로 건지고 또 고기는 고기대로 약으로 쓰니까 사람을 살리는 공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의 도리를, 즉 안보이는 자기를 믿지 않고 모른다면 살생이 되는 것이고, 믿고 안다면 살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덕이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 지구라는 것은 공기주머니와 같다고요. 같은 게 아니라 그러해요. 마음으로서 벗어날 수 있지 이 육체는 벗어날 수 없는 자리가 바로 공기주머니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허공에 꼭 차 있고 써도 써도 남음이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 공부하

는 사람들은 자기 주체가 자기 안에 있다는 걸 알고 보이지 않는 위대한 자기를 믿거든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자기가 왜 위대하나 하면 무엇이 지수화중에서 부터 만나서 형성되고, 형성됨으로써 해서 원기가 돌고 원기가 돌니까 생물이 생기고, 그래서 모든 게 그렇게 진화해서 사람까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수억겁을 돌면서 붙들고 나온 자기의 뿌리가 얼마나 소중한 걸까요? 그리고 자기를 못되게 할 리 없죠. 자기가 자기 모습을 형성시켜서 이끌고 가는데 어떻게 자기를 잘못되게 하겠습니까? 그건 법의 부모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만약에 ‘하늘이 무너지는데 너 이대로 있을 거냐? 달아나거라.’ 하더라도 ‘죽이는 것도

너, 살리는 것도 너데 될 달아나.’ 이런 정도가 돼야 한다. 사람이 사는데 때에 따라서는 참 딱하고 불쌍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사람만 그런 건 아니죠. 요만한 지렁이 곤충등 미생물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그래요. 부자로 살아도 그만한 이유가 있고 가난하게 살아도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 말예요.

그러니 얼른 깨우쳐서 이 중세계(中世界)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세계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내 몸에서 벗어나야 지구의 공기주머니 안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공기주머니 안에서 벗어나야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천대천세계란 무엇인가? 과거·미래·현재를 말합니다. ‘과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64

내 샘물은 막아놓고 한바가지 물을 구걸할 것인가.

“사람들은 여러 것에 의지한다. 부모 친척 친구들이 혹시 도와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돈·권력·명예·학벌 따위를 믿기도 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밖에 있다. 그러한 것들이 모를지기를 도움을 주기도 하겠지만, 밖에 있는 것은 언제나 부족하게 마련이다.

남이 퍼준 물 한바가지는 마시고 나면 곧 빈 바가지가 된다. 고로 나의 깊은 샘물을 떠 먹을 수 있어야 항상 든든하고 당당할 것이다.”

절음은 훨씬 가볍고 회합적일 것이다. 그러나 바깥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진 것이 남달리 빈약하다면 또 어찌 할 것인가. 움치고 뿔 자리가 없으며 주저 앉고 말아야 하나? 희망이 없다면 포기해야 하나?

도움은 무한정 계속되지 않는다. 내가 가진 것에도 한계가 있다. 도움이나 소유는 비유하자면 한바가지의 물과 같다.

물이 마른 내게 지금 한바가지의 물 밖에는 없는 샘이다. 그렇다면 이 한바가지의 물을 다 마셔버리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후의 갈증은 무엇으로 풀 것인가.

한바가지의 물을 지금 마셔서는 안된다. 그 물을 펌프에 들이붓고 열심히 펌프질을 해서 더 많은 물이 흘러 넘쳐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오래오래 목마르지 않고 내 샘물을 내가 퍼 올리며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그 정도의 물은 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걸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에 비하면 우리들의 대다수는 이미 훌륭한 자산을 갖고 있는 샘이다. 저 소액 새마을이나 꽃동네를 가 보라. 언어벽을 힘조차 없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그들을 보면 나 자신은 부자유 능력자임을 실감케 되고 그 사실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듣고 말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온전한 육신을 갖고 활동할 수 있음이 감사하다. 어찌 바깥의 물 한바가지 도움을 구걸하랴.

준 보배인 샘이다. 그러나 어찌 도움을 기대하고 가진 것이 적다고 한탄하랴.

도움이 없어서 할 일을 못한다면 그건 쟁쟁이 변명이다. 가진 게 없어서 하고픈 일을 도모하지 못한다면 그건 자기를 비하하는 일이다.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고 해야 할 일이라면 먼저 내가 나를 도와야 한다. 내 스스로 에너지로 가득 차야 한다. 조건이 맞지 않아서, 또는 환경이 나빠서 주저한다면 아예 구상도 하지 않는 게 낫다. 그것은 이미 허상일 수 밖에 없고 나를 앞세우는 이상의 찌꺼기 일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라도 어려운 처지에 빠지면 먼저 주위의 도움부터 청하게 된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부모? 친척? 친구? 어려운 처지에서 후원자를 만날 수 있음은 행운이다.

우리들은 뭔가 일을 도모하려 하면 먼저 조건을 따져본다. 내 소유의 자산, 능력, 입지를 계산해 보고 시장, 협력자의 유무등을 검토해 본다. 어쩌면 그것이 일의 당연한 순서일 것이고 되어 가는 모습이라.

가진 것이 넉넉하고 거기에 외부의 도움까지 기대할 수 있다면 대체로 성공의 가능성을 점치게 된다. 시작의 발

한바가지의 물을 지금 마셔서는 안된다. 그 물을 펌프에 들이붓고 열심히 펌프질을 해서 더 많은 물이 흘러 넘쳐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오래오래 목마르지 않고 내 샘물을 내가 퍼 올리며 살 수 있게 된다.

한바가지의 물조차 얻을 수 없다면 어찌 할 것인가. 그때는 속수무책일 것이다.

어디 그렇인가. 마음의 능력은 통하지 않는 곳이 없고 미치지 못하는 데가 없다 하지 않겠는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어떤 보배와도 바꿀 수 없는 마음이라는 보배가 있다. 그것은 퍼 내어도 퍼 내어도 줄지 않는 무한량의 샘물이다.

사람의 능력은 외부의 도움이나 소유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은 에너지의 원천이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그야말로 하늘이

대기업의 부회장을 지낸 사람이 호 텔벤처수업을 받는다고 한다. 내게 가진 게 없다고 그에게 말할 수 있겠는가. 실은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점에 감사하기는 커녕 조건을 탓하고 환경을 불만스러워 할 것인가.

밖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 내가 나를 도와야 남도 나를 돕고 하늘도 나를 돕는다.

협찬: 유근식